



울타리선교회가 흑인 성도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다. 사진 왼쪽이 대표 나주옥 목사.

흑인 친구들에게 자전거 선물했어요!

울타리선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지난 27일 성도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했다. 울타리선교회는 LA다운타운의 노숙자와 LA의 대표적인 흑인 주거지인 사우스LA의 흑인들을 섬기고 있다. 특히 사우스LA 지역에서는 남가주 각 지역 교회들의 자원봉사와 협력으로 토요일마다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울타리선교회는 가난한 흑인 성도들에게 연말연시에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 자전거를 선물하기로 결정하고 교회들에 후원을 요청했다. LA한인연합감리교회, 생수의 강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토렌스기

쁨교회, 성광장로교회, 나성소망교회, 미주서부장로교회 등 11개 교회와 강신옥 내과의 도움으로 20여 대의 새 자전거와 10여 대의 중고 자전거를 후원 받았다.

올해로 8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울타리선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선물했다. 현재 이 선교회는 42가와 웨스턴 길에 만나는 예배당에서 40여 명이 예배 드리고 있으며 갓 출석하게 된 사람부터 7년 이상 출석한 사람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다.

김준형 기자

IS로부터 피신한 난민 구호에 동참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가 터키 난민촌에 거주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구호활동을 펼친다. 현재 터키에는 IS의 테러로 인해 난민으로 전락한 이라크와 시리아 사람들이 입국해 난민촌을 이뤄 살고 있다. 그 수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약 10만명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

교회 측은 "IS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이슬람인들이 이슬람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바로 그들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고 '지금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님세운교회는 실크웨이브미션을 통해 이스탄불에서 수리아 안디옥 난민촌, 가지안테베, 디아르바르 난민촌 등 3군데를 방문해 구호한다. 난민 한 가정의 한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는 빵과 식수, 모포 등 300달러 상당의 생필품 패키지를 나눠 주는 것이 주요 사역이다. 주님세운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 현재까지 6만2천 달러를 모금했으며 1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교회 분당에서 남가주드림오케스트라(지휘 다니엘 석)의 자선 공연도 펼친다.

주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전화) 310-325-4020



신년초찬기도회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 한인교계와 한인 커뮤니티,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2015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계와 사회 되길

남가주교계 신년초찬기도회로 새해 시작

남가주 교계가 신년 초찬기도회로 2015년을 시작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매년 초 개최하는 이 행사는 교계와 사회가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다.

1월 6일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매년 이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와 함께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의 인사들이 참석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외에는 특별한 한인사회 인사가 없었고 미 주류사회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기도회'라는 행사 목적 자체에 매우 충실했다. 기도자가 대표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참석자들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미국과 한국, 한인교계와 한인 커뮤니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등 5가지 주제를 놓고 각각의 기도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말하고 나면 모든 참석자들이 5분간 통성기도 한 후, 다시 기도 인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마치는 형식이였다.

특히 이날 설교는 한기형 목사

(나성동산교회)가 맡았다. 한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협(신 11:8-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협이 되라"고 축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동을 주는 교협이 되어야 한다"면서 "복음 전파와 기도, 영성 고취와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는 교협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 이날 한기형 목사의 참석은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남가주교협은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사랑의 쌀 문제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한 목사는 성시화운동의 상임회장으로, 그 갈등에 있어 당사자라 할 수 있다. 한 목사가 남가주교협의 행사에서 설교했다는 사실은 이 두 단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 목사가 설교를 마친 후, 남가주교협 회장 최혁 목사는 "설교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최혁 목사는

최근 사랑의 쌀 운동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협의 통계에 따르면, 1월 7일 오후 4시 현재 5만9,180달러의 헌금이 담지된 상태이며 작정 금액도 5,500달러가 잡혀 있다. 작정된 금액이 모두 입금된다면 6만4,680달러가 모금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사랑의 쌀을 신청한 사람은 4천여 명으로 집계된다.

남가주교협은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쌀 한 포대를 대략 10달러 선으로 잡아 1만명에게 1만 포대 즉 1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최혁 목사는 "눈에 보이는 모금액이나 쌀 자체보다는 교계의 화해와 사랑의 나눔에 더 주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다수의 순서를 남가주교협 관계자들이 맡았지만 심진구 남가주목사회 부회장, 전동은 중부교협 부회장, 김영대 청소년비전센터 이사장 등 외부 인사도 있었다. 이례적으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인 이승민 전도사가 5명의 기도자 중 한 명으로 기도회를 인도해 눈길을 끌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MI 기독교의료상호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HAPPY NEWYEAR

코헨신학대학교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선교를 위해 설립된 신학교입니다. 특히 제3세계와 현지인들에게 신학교육을하며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코헨신학대학교는 2015년 1월 현재 세계 103개국 전략적 도시에 선교센터와 기독교 종합교육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헌신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교단과 세계교회와 동문 여러분들의 기도화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법인이사장 Dr. Merilline Cohen, D.D.
- 법인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D.R.E.
- 부총장 Dr. Carol Spanier, Ph.D.
- 국제총장 Dr. Gary G Cohen, Th.D., Litt.D.
- 대학원장 Dr. William Stinde, Ph.D.
- 박사원장 Dr. Vance Vandermey, Th.D.
- 행정학감 Dr. Sarah Kim, Th.D., Ph.D.

17002 S. Prairie Ave., Suite 2000, Torrance, CA 90504
 (T)1-424-257-8171, (F) 1-424-257-8136 E-Mail : cohenuniversity@hotmail.com

장애인 섬기는 일꾼들 연합 송년회

밀알 · 나눔선교회 · 농아교회 · 종려교회 등 참여



남가주 지역 4개의 장애인 및 긍휼 사역 단체가 연합해 송년 행사를 치렀다.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및 긍휼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연합해서 201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했다.

12월 27일 열린 이 행사에는 남가주밀알선교단(이영선 목사), 나눔선교회(한영호 목사), 남가주농아교회(강상희 목사), 종려선교회(전성도 전도사) 등 4개 단체에서 250여 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들은 지난 한 해 자신들의 사역

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2015년 도 최선을 다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다 다짐했다.

예배에서는 강상희 목사가 “ 긍휼 (눅7:11-1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고 송년잔치에서는 ANC유스 챔버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남가주농아교회가 수어찬양을 선보여 은혜를 더했다.

한편, 이 행사를 위해 또감사선교회(최경욱 목사)가 장소와 식사를 후원했다. 김나래 기자

군사랑선교회 송년모임에서 선교기금 전달



군사랑선교회가 2014년을 보내며 지난 27일 송년예배를 드렸다.

군사랑선교회(CLMM)가 지난 1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송년예배를 드렸다. 27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회원 50여 명은 비전사각장애인선교회(회장 추영수 목사)와 C국으로 파송받은 총무 이성희 목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했다.

1부 예배는 회장 김회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이신모 장로(원로 사무총장)가 기도하고 이 단체의 창립자인 임동선 목사(명예회장)가 ‘회고와 전망’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군인들과 미국과 한국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했다. 권화순 장로가 기도한 후 사각장애인선교회와 삼일여성동지회가 찬양을, 수지 박과 에이미 최 씨가 율동찬양을 했다. 모든 행사는 권다니엘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군사랑선교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6층(500 S.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에서 모인다.

문의) 이종수 부회장, 818-472-4827

“양의 해에 바라는 염원”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의 신년 메시지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더 멀어진 인간의 현실입니다.

시인 정호승은 <무릎>이라는 시에서 낙타를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 무릎을 꿇고 /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 밤이 깊으면 / 먼저 무릎을 꿇고 /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지을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온 권위와 전통과 신앙을 버리고 이성의 힘과 속도에 기댄 발전을 신봉하면서 현 사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 증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시간을 버리고 1초를 10억으로 나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노세컨드’에 기반을 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끌어 올리려는 기술의 가속화로 인하여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그 원래 크기의 약 6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빠른 교통과 초고속 통신과 인터넷으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가 이전과는 달리 훨씬 작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가속화와 함께 사회와 문화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의 가속도로 치닫는 세상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만, 갈수록 잦아들고 환상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방향을 잃은 속도와 발전은 광포와 야만을 초래합니다. 삶의 질은 현격히 떨어지고 심각한 영성의 고갈을 가져 왔습니다.

인간 본연의 적나라한 모습에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헤아리는 영성이 고갈된 세상에는 어두움이 점점 깊어갑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의 근원이셨던 주님과 별처럼 세상을 밝혔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상은 사막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주님 앞에 자꾸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먼 곳을 바라보아야 현실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뛰벽이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늘어날수록 이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Blaise Pascal)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텅 빈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하여 세상의 온갖 것으로 쏟아 붓고 채우려 듭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인데,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채우려 하면 할수록 갈증을 해결하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빈 공간은 더욱 허해집니다. 하나님으로써

그러한 비전은 공동체 전체를 품어야 합니다.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며 품고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엡 4:13) 협력하는 정신과 자세가 양의 해인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각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과 속도를 신봉하고 신앙을 구시대 유물로 취급하는 이 시대가 역설적으로 신앙과 영성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받들어 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양과 같이 함께 무리를 지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2015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 양이 지닌 희생의 미덕과 함께함이라는 공동체적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무너진 토대를 다시 회복하고 분단의 아픔에 속절없이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통일을 향해 나가는 해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티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엠마오장로교회 최준우목사 취임예배

할렐루야!
저희 엠마오장로교회에서 기쁜소식을 알립니다.
금번에 새로 최준우 목사님을 담임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어
주 안에서 기쁨과 축하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시 : 2015년 1월 18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 엠마오장로교회
주소 : 18435 Valley Blvd., La Puente, CA 91744
TEL : (626)913-9191

최준우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Emmaus Presbyterian Church
18435 Valley Blvd., La Puente, CA 91744 / T. (626)913-9191

거리의 친구들에겐 생명의 쉼터, 침낭 200개 배부

베레카홀리스선교회(대표 최명균 목사)가 지난 한달 동안 사랑의 침낭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6천불 상당의 침낭 200개가 담지됐고 이를 남가주 일원의 홀리스들에게 전달했다.

7년째 홀리스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동시에 급식, 이발미용, 침술봉사 등을 하고 있는 이 선교회는 매주 LA 다운타운 스킵드 우와 OC 샌타애나 지역 등 5개 곳에서 사역 중이다.

겨울이 되면 홀리스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베레카홀리스선교회가 홀리스들을 위해 침낭 200개를 모아 배부했다.

선교회는 홀리스들에게 침낭을 배부해 일시적으로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문의) 714-392-1916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동문회 관계자들. 왼쪽부터 강영창 목사(미주장신대 전 부학장), 최명환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 강신권 목사(동문회장), 이경화 목사(부회장), 고영준 목사(운영팀장), 김동원 목사(동원팀장).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바로 그날 위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들이 2014년 송년회를 아름다운동산교회에서 열었다.

이날은 먼저 식사 교제 후에 경건회, 환영 행사, 장기자랑 시간을 이어갔다. 이 행사에는 미주장신대의 이상명 총장도 참석해 축하했으며 동문들의 사랑을 모아 동문회장 강신권 목사가 이 총장에게 학생활동비를 헌금했다.

경건회에서는 이경화 목사가 기도한 후, 강신권 목사가 “바움 하제(출19: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바움 하제는 히브리어로 “바로 그날”이란 뜻이다.

강 목사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모든 공동체에는 ‘바로 그날’이 존재한다. 이스라엘도 출

애급 후 부족사회에서 국가로 세워지는 바로 그날이 시내산에서 찾아온다. 미주장신대의 동문이 1981년 이래 600여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마라 사건, 엘림 사건, 아말렉 사건 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때 ‘바움 하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미주장신대는 2012년 이상명 총장 취임 이후 ▷양질의 신학 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이중언어교육 등 5가지 비전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 이민교회를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빛의 소명 감당하는 기독언론 되어라

기독일보 2015년 시무 예배, 후원 동역자들과 함께해

본사 2015년 시무 예배가 지난 5일(월)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에서 은혜롭게 드러졌다. 특히 이날 예배에는 기독언론의 정론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소망하는 후원 동역자들이 함께 하며 올미년 새해 첫 날을 열었다.

이인규 본사 사장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강신권 목사(본보 편집위원·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는 성경본문 창세기 1:1-5를 중심으로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말씀을 통해 “UN은 세계를 움직이는 기관이다. 그러한 UN이 올해를 ‘빛의 해’로 정했다. 이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본격적인 빛의 행보로, 인류가 역사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 도전에는 “첫째 우주에 대한 기원의 문제로, 우주 기원의 과학적 접근이 몇 가지 성공을 거둬오면서 그만큼 성경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신학교에서조차 창세기와 심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려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신학교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학교와 교회 교육의 차이도 너무 멀어지고 있어서 동성애 문제 등 심각해져 가는 학내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



2015년 새해를 맞이해 본사 임직원 및 후원 동역자들이 함께 한 시무식 예배가 은혜롭게 드러졌다. 이인규 사장, 홍성준 목사, 강신권 목사, 존김 회장(맨 앞줄 좌측으로부터)

게 창세기 1장을 가르칠 수가 있을지조차 의문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문제로, 인간복제 기술 등의 생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생명 기원의 성경적 해석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시대의 등대와도 같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기독일보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후원 동역자이신 존김 회장(비즈니스포스트그룹)은 이민 1세 뿐만 아니

라 믿음의 2-3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독일보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며 격려했다.

한편, 본사 이인규 사장은 “이민한 이민 1세뿐만 아니라 2-3세대도 그들이 믿음의 계보를 굳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인터넷 영문신문(www.christianitydaily.com) 발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협력하고 동역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2015년 본사 시무 예배는 말씀을 전한 강신권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두 은혜롭게 마쳤다.

뉴미디어 시대를 위한 설교 세미나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영상설교 일일 세미나”가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90006)에서 열린다.

회비는 20달러이며 점심이 포함돼 있다. 남가주 지역 목회자 50명을 선착순으로 받으며 반드시 자신의 랩탑 컴퓨터를 지참해야 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상문화와 영상설교, 영상설교의 실례, 영상설교를 위한 PPT 제작, 동영상 제작 실례 등의 강제가 진행된다. 문의) 양경선 목사 213-255-1725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회 신임원 선출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회장을 역임했던 이들의 친목모임인 증경회장회가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류당열 목사를, 신임총무에 성충정 목사를 선출했다. 류 목사는 1994년 목사회 제27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총회는 사회 함명철 목사, 기도 구기조 목사, 폐회기도 성충정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류당열 신임회장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8월~11월) - 서부인삼팀 T.323.737.8888

Fullerton 지부: 1701 W Orangewood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이리왕야영팀)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2015년도 학생 모집

www.mrtsusa.org E-Mail: mrtsusa@hotmail.com

“신학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5년 Spring Semester Time Table 봄 학기 강의 과목

Subjects	Professor
◆ 조직신학(기독론) Systematic Theology IV	현연섭 박사 Dr. Youn Sup Hyun
◆ 청도교 신학 Puritan Theology	박상목 박사 Dr. Sang Mok Park
◆ 기독교 교육 철학 Philo. Chr. Education	임영호 박사 Dr. Yong Ho Yim
◆ 욕기 Jobs	이정수 박사 Dr. Jing Soo Lee
◆ 시가서 Poetic Books	김철 박사 Dr. Chul Kim
◆ 성경적 지도자론 Biblical Leadership	정승룡 박사 Dr. Joseph S.Jung

◆ 대학교과정(Bachelor) 4년

- ◆ 신학학사
- ◆ 기독교 교육학사
- ◆ 종교 음악 학사
- 고졸 및 동등학력 자

◆ 대학원과정(Master) 3년

- ◆ 기독교 교육석사
- ◆ 종교 음악 석사
- ◆ 신학석사
- ◆ 목회신학 석사
- 대졸 및 동등학력 자

◆ 박사과정(Doctor) 2년

- ◆ 기독교 교육학 박사
- ◆ 목회신학 박사
- ◆ 신학 박사
- ◆ 종교철학 박사
- 대학원 및 동등학력 자

● 본교는 순수한 개혁주의 기독교대학으로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을 발굴하여 훈련하며 지원하여,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각자가 힘껏 헌신할 수 있도록 사역자의 길을 준비케 하여 세상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 또한 본교는 세계 어디에서나 학문을 연구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및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름에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 중에 재정적 형편에 따라 장학금 학비 전액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나 왼쪽 위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교무처: (323)428-7878 ● 교학처: (213)999-1307 ● 한국 사무소: 070-7883-3011 / 02-888-0672

Mathetes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4545 W. Washington Bl. Los Angeles, CA 90016 U.S.A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교회는 왜 급성장 했을까? (II)

<지난 회에 이어> 초기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셋째 원인은 국왕 고종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호의를 보인 점이다. 로마 천주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무군무부(無君無父: 왕이 없고 애비가 없다)의 종교라는 오인으로 조정과 왕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첫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1884년 9월에 입국한 그해 12월에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났다. 개화파가 수구파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명성왕후의 조카이며 실권자인 민영익이 칼을 일곱 군데나 맞고 사경을 헤맸다. 그 때 알렌이 그를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알렌은 곧 국왕 고종의 어의(御醫)로 임명되었다. 이 일로 알렌은 제중원이라는 한국 최초의 서양 진료소를 개설했다.

1900년도 초 미국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의 석유 재벌 루이 세브란스 씨가 제중원에 거액을 희사해 주었다. 이 돈으로 서울 역전에 터를 구매하고 근대식 병원 건물을 신축한 후, 그를 기념하여 세브란스병원이란 이름이 명명되었다.

그 후 1895년, 일제의 폭도들이 궁성에 난입하여 집전에서 명성왕후를 시해한 을미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났다. 엄연한 독립국의 국모를 집전에서 칼로 난자해 죽이고, 채숨이 끊어지지 않은 왕후를 훑이 불에 싸 녹원으로 옮겨 석유를 뿌려 태워 버렸다. 후에 가 보니 시신은 재가 됐고, 굶은 뼈 몇 개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금년이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꼭 120년이 되는 을미년이다.

불안과 초조에 떨며 서러움에 잠긴 국왕 고종을 보호하기 위해 언더우드, 헐버트, 에비슨 등 선교사들이 밤에 교대로 불침번을 섰다. 고종 황제는 두려움으로 음식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혹 음식에 독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를 애석히 여긴 언더우드 부인 릴리어스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국왕께 보내 봉양하고 극진히 모심으로 왕의 환심을 사게 된다. 밤잠을 자지 않고, 자신을 보호해 주고, 식사를 걸러 가서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 선교사들에게 많은 신세를 진 국왕은 개신교에 대해 공개적 호의를 보이게 시작했다.

선교 현장에서 국왕의 호의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일찍이 중국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간 경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교(景教)가 당 태종 이하 여러 황제들의 호혜 정책으로 약 200년간 엄청난 선교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약 200년 후 무종이 등극하면서 외래 종교에 탄압을 가하자 불교와 더불어 경교는 중국에서 사라지는 운명에 봉착했다. 따라서 왕정 치하의 피선교지의 국왕이 기독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교회 선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한국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될 무렵 힘없는 조정은 외래 세력의 탐바구니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였다. 힘없는 나라의 국왕은 이런 수모를 감내해야만 한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선교지 정치에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고난 중에 있는 국왕을 방관할 수는 없었다.

선교사들의 휴머니즘적 동정과 헌신은 기독교 선교에 결정적 호기를 마련해 주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의료와 교육의 공헌을 익히 알고 있던 국왕이 자기에 인간적인 도움과 위로를 베푸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국왕의 적극적 지원이야말로 선교 사역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버팀목이었다. 개신교는 처음부터 왕실과 밀착되어 선교 교두보가 확보됨으로 선교에 많은 덕을 보았다. 일반 백성들 또한 조정이 새로운 신앙에 대해 호혜적 입장을 취할 뿐더러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일게 되었다.

넷째 요인은 다른 아시아 제국과 같이 서구의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 사이에 서구와 서구 종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중국은 서구 기독교 제국주의자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식민지 강탈과 아편 전쟁 같은 야만적 행위를 경험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 사람들의 서양에 대한 적대감을 고조시켰고, 자연히 서양인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게 했다. 따라서 중국인으로 기독교 신자가 되

는 것은 곧 민족과 국가에 반역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중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결정적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각지에서 민족주의 의식이 차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의식은 자연히 외세 척결과 토착적 문화 사랑의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현상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더욱 강하게 부상했다.

특히 서구 제국주의 군사적, 경제적 침탈은 해묵은 원한과 더불어, 서구 세력의 축출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고조됐다. 서구 세력의 축출은 곧 서구인들과 더불어 들어온 기독교의 축출이라는 명제와 동반됐다. 서구 세력이 국토와 자원을 유린함과 더불어 기독교가 민족종교 내지는 토착종교의 말살을 기도하여 결국 토착문화의 치명적 훼손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세력의 축출과 더불어 기독교의 축출까지 곱따라 이루어졌다. 이것은 1949년 중국이 공산화 되면서 15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던 수천 명의 서구 선교사들을 모두 축출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구의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직간접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독교가 항일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했다. 중국과 달리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되는 것이란 관념을 갖게 됐다.

3.1 독립운동 기간 동안 선교사들이 시위대를 보호하기도 했다. 또한 일제의 잔인무도한 범법 사실과 이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진들을 비밀리에 외국에 보내 저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온 세계에 폭로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운동에 선교사들이 협조한 사실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눈여겨 보았다. 이를 본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적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호혜적 입장에 선 것은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통계에서 봐도 3.1 독립운동 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초기 선교에 괄목할 만한 실적을 이룬 여러 이유 중, 국왕의 공개적 지원과 서구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계속>

W M S

WISDOM MISSION SCHOOL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 학생이 변화되는 학교



상대방 배려와 열정의 삶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 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3번째 간증> 위즈덤미션스쿨 졸업생으로서 학교가 나의 눈을 열어 공부와 장래에 대해 깨닫게 해



Jason Kim 군
UCLA 입학

주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학생으로 성장케 한 것에 감사한다.

이전 학교에서 나는 게으르고 열정이 없었다. 입학하고 잘 하리라고 마음 먹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위즈덤미션스쿨을 졸업하고 UC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형의 영향을 받아 위즈덤미션스쿨로 전학을 왔다.

매일 QT와 채플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잃어 버렸던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려니 많이 섭섭하다. 그러나 나는 위즈덤미션스쿨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더 큰 사회에 나가 빛을 비출 열정으로 가득하다.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개설!!

박사과정

선교학 박사(D.Miss)
유학생 1-20 발급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MA ICS)

학사과정

신학사(BA)

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5년 1월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발급
-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전 과정 온라인 수강 가능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 온라인 과정 : 수시모집
- English Track(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내 (Tel: 213-479-4500)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미션대학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준회원

1645 W.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은혜교회내) 714-525-0088, 515-5885(고객지원) admissions@gm.edu

사망의 올무가 되는 욕심

야고보서 1: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정탄생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약혼했던 요셉과 정식 결혼을 하고 낳은 네 아들 중 맏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3:55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 대기도 하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햇빛이 흐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른 동생들도 포함한 120명이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기도 에 전혀 힘쓰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에 불들리고 이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되며 행동이 성실하여 충성스러움으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당회장으로 사역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해 아주 겸손한 신앙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거듭난 심령들,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소망을 목표로 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 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회개를 했고 죄를 용서 받아서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최악의 근성이 아직은 잠재되어 있으며 영영히 없어진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미끼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부적 압력 박해입니다. 내적으로 잠재된 욕망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유혹,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험은 외압에 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니

까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앙심을 빼앗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행패와 억압, 심지어 죽음으로써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순풍에 돛단듯 아무 시련도 없이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환란과 시련, 행패와 고통, 핍박, 여러 가지 억울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고보서 1:3-4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개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성령을 파송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고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하여금 이 세상 허욕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월해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셔서 세상 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갖 유혹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잦은 실족의 미끼는 돈, 명예, 권력, 성적유혹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면 왜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마귀에게 속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귀가 미워하고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18-19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소속관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행패와 환란과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을 믿음으로 타개(打開)하고 극복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치루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시험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믿음이 얽치락 뒤치락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마귀가 만 들어가는 상황에 집착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을 서둘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신앙인이라면 마귀가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기대와 선망의 자녀로 돋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못살게 괴롭히고 시험한다고 깨닫는 영감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약1:5).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낮은 형제’란 이 세상 조건으로 가진 것이 없고 명분도 없고 지위도, 지식, 기술도 돈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의 세상 조건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조건은 부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 하늘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의 신앙인격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구제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

국에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풀에 꽃과 같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영생복락의 신령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영감적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9-12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절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유황불에 시달리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眞髓)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17을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잠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장: Sexes 1: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자동차 도네이션

**아리조나 인디오 선교사에게
자동차가 절실 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도네이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Tel. 424 - 220 - 0360 (전 에스더 선교사)
213 - 718 - 1512

최근의 선교학계에서는 선교를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는 좁은 범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개념입니다. 선교는 총체적이지 포괄적(holistic and comprehensive)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교회의 예배하는 일을 제외한 교회의 사명은 양육과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선교는 복음 전파와 사회 봉사를 포함하며, 국내와 국외의 활동을 포괄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은 전도라는 말보다 훨씬 내포하는 의미가 풍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성도들을 향하여는 양육하는 교회요, 교회 밖을 향하여는 성도를 파송하여 복음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선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평신도가 국내나 국외에 파송되는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 평신도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총체적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우리의 선교적 삶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전선(frontiers)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복음의 “횡적 확산”에 의하여 생겨지는 타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공간적 프론티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신앙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복음의 “종적 심화”를 위한 문화적 프론티어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두 가지 지평은 복음의 횡적 확산과 종적 심화에 있습니다. 전자는 땅끝을 전선으로 하여 나아가는 지역적 확산이고, 후자는 복음의 영향력을 문화-역사적으로 심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선교는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줌으로

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선은 해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도 존재합니다. 교역자와 평신도 모두는 동일하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모든 성도는 사실상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평신도는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목회자와 선교사는 지역 교회와 해외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외선교사도 보내야 하지만, 동시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은 바로 영혼구원과 함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감당하신 총체적 선교의 전형입니다. 선교사역이 모든 신자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해외선교를 하면서 우리의 주변 영역도 개혁을 위한 프론티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역시 선교지입니다.

양떼해의 목자의 각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기 위함이며, 저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침 새해는 올미년 양띠의 해라고 합니다. 양떼를 특별히 잘 돌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저 자신도 양임을 더욱 분명히 확성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본래 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못됐고, 제멋대로 사는 동물입니다. 면역도 약해서 목자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이내 죽어버릴 수 있는 형편없는 동물입니다. 잘하는 것

은 없고, 시력도 좋지 않아 길을 헤매기 일수입니다. 굳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 싸우고, 옆에 있는 동료 를 심심하면 들이받는 것입니다. 거기가 머리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써먹을 데가 없는 동물인데,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양떼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목사에게 그 양떼를 맡기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니.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먹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고 이끌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별로 쓸데없는 이 양 한 마리 잡아, 남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담요 한 장 만들어 주시듯, 양떼들이 털을 깎아 큰 담요 만들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따뜻하게 덮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참된 기도자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쳐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에 늘 응답받는 역사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다시금 정리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영적인 요청의 자리이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런 기도를 했던 자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저들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목자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

하여 나아가갈 때,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성을 쌓게 된다. 사명이 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비전이라고 외치지만,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일이 되고 만다.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달려가는 자들을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운다.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한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야망이다. 자신의 고집과 이성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언제나 아픔이 일어나고 넘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그 화려했던 모든 인간적인 배경과 준비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렸다고 고백했다. 참된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기다리며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명자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마땅한 모습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이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Let Us Pray 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도의 목표는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의 재물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데 있다.” 그렇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15:7에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주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 기도의 첫 시작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수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육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변을 겪고 완치됨. 그후 4년후 늦음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할 정도로 완벽.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칼이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빠져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뇨증	여러차례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자신의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세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라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궉(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도 되고 있음. 왼쪽 마비도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이야기 35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적송자(赤松子)와 왕지교(王之喬) 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송교지수(松喬之壽) 라고 한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혈액이 건강하게 깨끗해야 한다는것은 거의 모든분들의생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혈액순환용으로 혈압약과 어린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 주는것이 아니라, 응고되어있는 혈액을 잠시동안 녹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아마도 녹여주면서 미세한 모세혈관도 같이 녹일수도 있으므로 뇌출혈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혈액이 탁하여 생기는 가장 큰병으로 각종 암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암을 방사선 치료로 고철려고 하면 혈소판이라는것이 파괴되어서 더 큰 낭패를 보게됩니다. 어떠한 암에 걸렸더라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 준다면 큰 수술또는 방사선의 치료없이 완치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수 있는지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4장 21절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의 바다 위를 걸으셨을때, 베드로도 잠사공안 믿음으로 바다위를 걸었던 기록입니다.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요한복음21장 6절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인데 이곳에서도 베드로가 또다시 바다위를 걸은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가되 7.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8.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내용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하니까 걸옷을 입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약 100미터 떨어진 육지로 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걸옷이 구원이라는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 의미를 두지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 들때 입은옷도 벗는마당에 어부였지만 수영도 못하는 베드로는 반대로 걸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믿음이 강해져서 바다위를 뛰어서 육지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나무 불이 숯불이 될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다른사람들이 올때까지 기다렸던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한 혈액을 만들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몸은 신기하게도 영양분만 잘 공급되면 백혈구와 적혈구는 3일과 7일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이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본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본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7+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엘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늘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마삭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랜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 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이슬람 국가 터키 전국 후 최초로 교회 신축 허가

다부토울루 총리, 타 종교 지도자들과 회동하기도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의 전경 ©위키피디아

이슬람 국가인 터키가 1923년 이슬람 공화국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 신축을 허가했다.

AFP통신은 최근 “터키의 아흐메트 다부토울루(Ahmet Davutoglu) 총리는 최근 종교 지도자들과 회동하고 시리아 그리스도 교회가 이스탄불에 소재한 국가 부지에 건축될 예정”이라고 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총리는 동방정교회의 바르톨로뮤 1세 총대주교와 아르메니안정교회의 아람 아텐산 주교, 유대교

의 아사르 할레바 랍비장 등 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신년 만찬회를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회는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 인근 예실코이 지역에 설립될 예정이다. 이곳은 개신교회·가톨릭교회·그리스정교회 등이 위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다.

터키의 인구는 약 8천만 명이며 대부분 무슬림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약 10만 명이다. 터키는 기독교의 유적지가 많은 곳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지

금까지 현존하는 교회 건물의 보수만 허용해 왔다.

AFP통신은 “터키 정부가 교회 신축을 허가한 것은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재건축되거나 다시 문을 연 사례들은 있지만, 신축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리스정교회 교회였던 하기아 소피아 박물관(Hagia Sophia Museum)은 지난 2013년 라마단 첫 번째 기도회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터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모두 기독교 국가”라고 비판했다. 터키는 지난해 10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도전했으나, 3차 투표에서 스페인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의 결정을 보면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서방 이념에 편향된 결정들을 내린다. 노벨상위원회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북한은 세계 최대 박해국 13년째 불명예

약 5~7만 명의 크리스천 北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전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국가로 북한이 13년째 1위를 차지했다. 1991년부터 매년 크리스천 박해지수를 발표해 온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오픈도어)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국가 전역에서 김정영의 삼촌 장성택 국방부위원장의 처형과 관련,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숙청되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김정욱 선교사의 납치와 억류 사건으로 수많은 크리스천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거나 살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픈도어는 덧붙였다.

북한에는 약 5~7만 명의 크리스천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성경을 소지하다 발각되면 징역생활을 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15년 세계 박해순위(WWL·World Watch List)의 최상위 10 개국은 북한에 이어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순이다. 작년 10위권에 들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몰디브, 예멘은 10위권에서 벗어났고 대신 수단과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가 작년보다 높은 박해지수를 기록하며 새롭게 포함됐다.

‘이슬람 극단주의’는 상위 50개국 중 40개국에서 주요 박해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박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독재주의 편향’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주요 박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오픈도어는 설명했다. 선교회는 “50개 국가의 총 박해지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3위, 작년 4위)와 시리아(4위, 작년 3위)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크리스천이 난민이 되었다. 이라크에서는 여러 주에서 IS가 칼리프 체제를 선포하여 수많은 크리스천이 난민이 됐고, 여성과 아동들이 납치를 당했다. 시리아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지하디스트(Jihadist, 성전주의) 단체들의 영향력으로 크리스천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2011년 내전 이후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약 70만 명의 크리스천이 난민이 되었고, 2014년에만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란(7위, 작년 9위)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법적인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박해지

수의 증가와 함께 순위가 상승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의 또 다른 중심지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러한 극단주의는 보코 하람(Boko Haram) 같은 지하디스트 단체들뿐만 아니라 문화를 장악하려는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순위에서 박해지수가 크게 증가한 12개국 중 8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소말리아는 작년에 이어 2위이며, 수단(6위, 작년 11위)과 에리트레아(9위, 작년 12위)와 나이지리아(10위, 작년 14위)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수단과 에리트레아는 1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으며, 나이지리아는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올랐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약 65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북한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한동안 박해 상황이 개선됐다가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12개의 국가가 2015년 리스트에 포함됐고, 라오스와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작년보다 박해지수가 상승했다. 중국(29위, 작년 37위), 말레이시아(37위, 작년 40위), 인도네시아(47위, 작년 47위)에는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과 교회가 있지만, 정부와 사회 구조적인 압박과 통제가 여전히 심해 크리스천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종교 극단주의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

남아시아의 인도(2위, 작년 28위)는 작년 5월 힌두 근본주의 단체가 모체인 집권당 BJP(인도국민당)의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기독교 및 종교 소수 집단의 상황이 악화됐다. 특히 힌두근본주의자들의 크리스천들에 대한 연계종 운동과 그 외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력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멕시코(38위), 터키(41위), 아제르바이잔(46위)은 몇 년 동안 박해순위 밖에 있었지만, 이번엔 순위에도 포함됐다. 높은 범죄율로 잘 알려진 멕시코는 범죄 집단들이 교회를 자금 획득을 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며 크리스천을 향한 폭행과 살인 사건이 늘고 있다. 터키는 기독교에 대한 법적인 통제와 함께 크리스천들에 대한 무슬림들의 사회적 적대감과 핍박이 심각하며,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자주 물리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美 고고학자들 “예수 재판 장소 발견했다” 주장



미국 케이블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미니시리즈 '바이블'의 한 장면

예수가 빌라도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은 장소를 발견한 것으로 미국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고고학자들은 15년 전 예루살렘 다윗의 탑 박물관 확장 공사를 계기로 인근의 건물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예상 외로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

은 이 장소가 예수 재판 장소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됐다.

이어 발굴이 진행되면서 예수의 재판이 이뤄진 곳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차례대로 발견됐다고 학자들은 밝혔다.

만약 이 곳이 재판 장소로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현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밟고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의 순례길인 '고난의

길(Via Dolorosa)'의 출발점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예수가 재판을 받은 장소를 두고 그동안 종교계, 고고학계, 역사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경에는 예수가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끌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관저의 위치를 두고 로마군 병영에 있었다는 해석과 헤롯왕의 궁에 손넵으로 가 있었을 때 머물던 관저라는 두 해석이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헤롯왕의 궁은 다윗의 탑 박물관이 있었던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의 사이먼 김슨 교수는 “요한복음에는 재판이 예루살렘 성곽 문 근처 궁의 울퉁불퉁한 돌포장길에서 열렸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번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정 기자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개그맨 강성범과 함께하는 고베주얼매트 출시기념

사상최대 경품대잔치!

고베펠특별진주보석쇼!

엘에이 한인타운 로텍스호텔에서 3일간 펼쳐집니다!!

고베주얼매트 1차 물량 완판 감사!! 2차 물량 출시 기념
2015년 새해를 맞아 15000불 상당의 경품을 마련했습니다



2등 고베주얼매트 싱글

1등 고베주얼매트 퀸

1등 고베주얼매트 퀸 \$2999불 상당 (1명)
2등 고베주얼매트 싱글 \$2299불 상당 (3명)
3등 고베주얼매트 프로페셔널 \$1699불 상당 (1명)
4등 천연 옥매트 \$1299불 상당 (2명)

5등 자수정 인견사 매트 퀸 \$799불 상당 (3명)
6등 자수정 인견사 매트 싱글 \$599불 상당 (5명)

* 행사기간중 고베펠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응모하실수있는 기회!
* 상품에 발생하는 SALES TAX 및 배송비는 당첨 되신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 행사 마지막날 2015년 1월 25일 일요일 추첨은 진행 됩니다.
* 모든 경품행사 상품은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형 고베주얼매트 출시!

뉴욕 첫출시 행사에서 전량매진 고베주얼매트!

온열매트계 루이비통!! '고베주얼매트'

2015 고베주얼매트가 잠자리로 좋은 6가지 이유는?

1. 매트계의 '루이비통'으로서 가격은 시중가보다 최고 500불 이상 저렴하다.
2. 자수정 원적외선과 이온에 의한 윤택한 성 생활 등 섹시 아이콘으로도 손색이 없다.
3. 최고급 무자계 열선 등 최첨단 신소재로 전자, 수액파를 완전 차단한다.
4. 돌, 흙침대 보다 딱딱하지 않고 무겁지 않아 이사 및 이동이 간편하다.
5. 의료가기로서 한국 KFDA 승인에 이어 미국 FDA에도 등록을 했다.
6. 허리 통증, 당뇨병, 각종 부인병을 치료하고 자고나면 피부가 촉촉해진다.

고베 힐링 자수정 매트 (퀸사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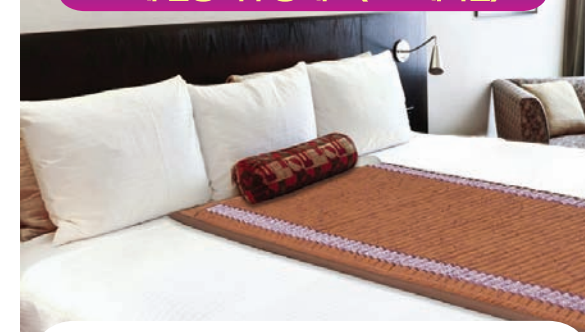
2인용 일반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침대위에 놓고 사용하시거나, 자수정 침대용 보료로 제작된 사이즈입니다.
KOBE HEALING MAT QUEEN
SIZE: 1500 X 2000 cm
WEIGHT: 30kg
~~\$3499~~ **\$2999** +TAX
본행사 기념 행사특가

고베 힐링 자수정 매트 (싱글사이즈)



1인용 일반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정내 개인이 사용하거나 힐링 침대용으로 많이 사용되고있습니다.
KOBE HEALING MAT SINGLE
SIZE: 1000 X 2000 cm
WEIGHT: 17.7kg
~~\$2999~~ **\$2299** +TAX
본행사 기념 행사특가

고베 힐링 자수정 매트 (프로페셔널)



1인용으로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사이즈의 제품입니다.
KOBE HEALING MAT PRO
SIZE: 700 x 1880 cm
WEIGHT: 15kg
~~\$2599~~ **\$1699** +TAX
본행사 기념 행사특가

고베펠이 펼치는 '건강 100세, 이제 잠자리에 투자하자' 캠페인 "당뇨병, 요실금, 냉대하 등 부인병 확실히 잡는다!"

일본공법 한국세공 진주제품 5000여점 전시 특가 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전시 특가판매, 경제적이면서 화려한 천연양식진주 부터 최고급 품질의 아코야, 남양진주, 타히티 흑진주 등 4000여점의 진주보석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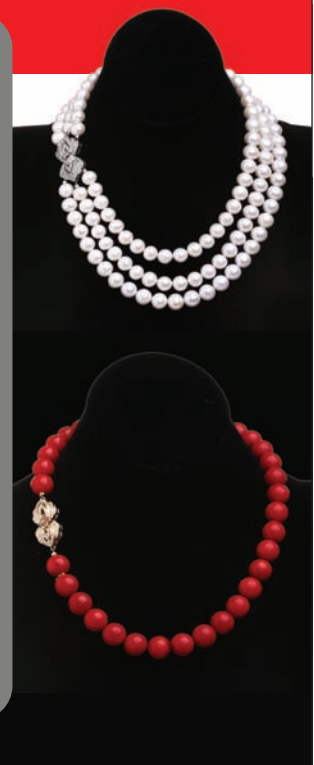


천연 자수정, 홍산호 아코야진주 등 2015 신제품 5000여점 대거 전시판매!

"진주의 가치를 아시는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컬렉션 특별세일

- 아코야 한줄 목걸이 (6mm - 6.5mm) Retail: \$3300 **\$799**
AKOYA SINGLE STRAND w/925 Silver Clasp
- 아코야 한줄 목걸이 (6.5mm - 7mm) Retail: \$3999 **\$1199**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 아코야 두줄 목걸이 (6mm - 6.5mm) Retail: \$5999 **\$1499**
AKOYA DOUBLE STRAND w/925 Silver Clasp
- 아코야 한줄 목걸이 (7mm - 8mm) Retail: \$7300 **\$2599**
AKOYA SINGLE STRAND w/14K Gold Clasp

* 헬렌아이코 프리미엄 아코야 진주는 화이트본으로 준비되어있습니다. 길이와 크기 빛깔에따라 가격이 소폭 다를수도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었으니 구입을 서두르세요.
* 모든 헬렌아이코 아코야제품은 보증서와 워런티가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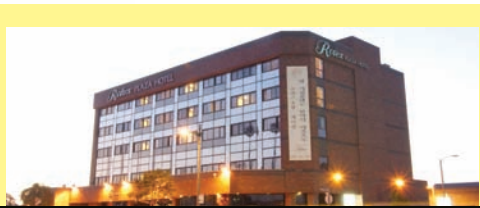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 안내

일시: 2015년 1월 23일(금) - 1월 25일(일), 3일간
행사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ROTEX HOTEL 2nd FL Banquet (올림픽과 그래머시)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타제품과 비교를 거부하는 품질! 차원이다른 광고 및 영업지원!

고베주얼매트와 함께하실 지역 대리점 및 취급점 판매대리 모집합니다.



KOBE PEARL LAS VEGAS

213.389.3887

카카오톡 문의 ID: KOBEINC

고베펠 온라인 스토어 WWW.KOBEPEARL.COM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교회연합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말씀,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 및 전단지)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산부 매디칼

요한 선교교회

gk4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현연섭**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lunholy@hanmail.net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 isaacd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친.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회
불리세(Calling), 고교(고Hearing), 기르미(Maturing), 맞선(Controll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nghyun.org

박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수요일 오후 7:3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나누며,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토)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 (토)
주일-비결중학교 / 토요새벽-1719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대안학교)과 라파예트 코너-620 S. La Fayette Park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과 유교, 이교, 사대, 불교, 기타, 이민자, 영성치료를 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719 버몬트 코너-152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ing.com

타코마 목사회, 교회연합회 합동 2015년 신년 감사예배 드려

감사와 헌신으로 한 해 동안 주 앞에 충성 다짐



2015년 타코마 목사회, 교회연합회 신년하례예배

타코마 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이동기 목사)와 타코마 목사회(회장 최성은 목사)는 지난 5일(월) 타코마 중앙선교회(담임 김삼중 목사)에서 2015년 신년 하례예배를 드리고 한 해 동안 주 앞에서의 충성을 다짐했다.

타코마 교계를 대표하는 두 연합기구의 연합 신년 하례예배에는 지역 원로 목회자들을 비롯해 회원교회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성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윤영주 목사는 “감사하는 해가 됩시다”(시편 53: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경순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신년 하례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윤영주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믿는 자들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모든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21년 간의 타코마에서의 목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은퇴한 윤영주 목사는 “타코마 지역 목회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력 가운데 목회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은퇴 후에도 제2의 고향인 타코마에서 거주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워싱턴주 한인 장로회(회장 장석태 장로) 임원단이 참석해 올 한 해 동안 타코마 지역 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타코마 목사회는 올해 서북미 5개 지역 목사회 연합 체육대회를 타코마에서 주관하게 됐음을 광고하며, 순조로운 행사 진행을 위한 지역 교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체육대회는 오는 7월 타코마 새생명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균 기자

미동부기아대책

2015년 맞아 사역 강화

29일 송년감사예배 열고 조직 발표, 이사장에 김승희 목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29일 오전 11시 30분 베이사이드 감미옥에서 송년예배를 드리고 새 조직을 발표했다. 김수태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해 12월 29일(월) 오전 11시 30분 베이사이드 한 식당에서 ‘2014년 송년감사예배’를 열고 신임 임원 및 조직을 발표하는 등 내년도 아동결연 사역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또 이사장 황영진 목사가 엘살바도르 선교목사로 파송됨에 따라 신임 이사장직은 김승희 목사가 맡게 됐다.

이날 김수태 목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눅9:10-17)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 사역을 돌아볼 때 비전이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된다. 목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면서 “비전의 핵심은 바로 이웃사랑이다. 기아대책의 사역은 바로 이웃사랑이고 이 분명한 비전이 있기에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사역”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했다.

회장 전희수 목사는 “미동부기아대책은 정치단체가 아니라 오직 떡과 복음을 전하는 순수 후원단체로 모인 것”이라면서 “아동 결연을 더욱 늘리고, 지역과 함께 하는 기아대책이 되도록 하겠다. 특

별히 연말에 여는 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은 커뮤니티를 초청하는 모두의 잔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이사장 김승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단체에서 대표는 회장이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사장은 그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험벗고 배고픈 사람을 돕는 미동부기아대책의 사역을 위해 도움과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미동부기아대책기구 신임조직.

임원단
△회장 전희수 목사 △부회장 유상열 목사 △서기 박이스라엘 목사 △부서기 박준열 목사 △회계 관계터던 목사 △부회계 김수경 목사

이사 및 고문위원
△이사장 김승희 목사 △부이사장 최재복 장로 △고문 황동익 목사 △고문 황영진 목사 △고문 박진하 목사 △상임 자문 김인한 장로 △사문위원 김수태 목사 △사문위원 이종명 목사

윤수영 기자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

2015 신년조찬기도회 및 하례식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 애틀랜타 한인사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 이웃 위해 합심기도로 한 해 시작



2015년 신년 조찬기도회 및 하례식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한병철 목사)와 북미주CBMC중부연합회(회장 배현규)가 공동 주최한 '2015 신년조찬기도회 및 하례식'이 3일(토) 오전 7시 30분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애틀랜타 한인 교계 및 단체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날 행사는 북미주기독실업인회 오대기 총연합회경회장의 대표기도와 남성 듀엣(안태환, 채혁)의 특송에 이어 한병철 회장(중앙장로교회 담임)이 "새 역사를 기대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병철 회장은 "2015년에는 예기치 않는 은혜와 은사를 기대해야 한다. 많은 일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이 나를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꾸자"고 덧붙였다. 이어서 신년특별기도 순서로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애틀랜타CBMC 송권식 회장)/애틀랜타 한인교민 사회를 위해(스나나CBMC 오상용 부회장)/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을 위해(yCBMC 김도영 직전회장)의 기도 시간이 진행됐다. 배현규 북미주 기독실업인회 중부연합회장 사회로 진행된 2부 신년인사 시간에는 유복렬 애틀랜타 부총연사, 오영록 애틀랜타한인회장, 신윤일 한인목사회 회장 등이 각각 인사말을 전했다.

윤수영 기자

선한목자교회

박준열 목사 취임-황영진 목사 파송

선교목사 임직파송 및 제3대 목사-시무장으로 취임예배 드려



선한목자교회가 황영진 2대 담임을 선교목사로 파송하고 박준열 목사를 3대 담임으로 맞았다. 이날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예배에서는 서도석 시무장로도 함께 취임했다.

선한목자교회가 지난 12월 28일(주일) 박준열 목사를 제3대 담임으로 맞고 2대 목사인 황영진 목사를 선교목사로 파송했다. 또 서도석 장로를 시무장으로 세웠다. 1부 감사예배는 황영진 목사의 인도로 나영애 목사 기도, 임그레이스 목사 성경봉독, 선한목자찬양대 찬양, 김종덕 목사 말씀, 김영환 집사 특송, 김홍석 목사 헌금기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2부 목사·장로 취임식은 한재홍 목사의 인도로 정태관 장로의 취임목사 약력 소개, 서약·선교 및 취임패 증정, 이재덕 목사(뉴욕교회 회장)의 축사, 에이미 닐랜드 목사의 축사, 닐 마켓슨 목사의 권면, 박준열 목사의 답사 순서로 진행됐다. 서도석 장로 시무장으로 취임식은 김병기 장로의 임직사 소개에 이어 박준열 목사가 취임패를 증정하고, 이재봉 목사의 권면(장로에게), 신성능 목사의 권면(교회에게), 린덴 목사(RCA 퀸즈노회장)의 축사, 한문섭 안수집사의 축가 등의 순서로 열렸다. 3부 황영진 선교목사 임직파송식은 박준열 목사의 인도로 정태관 장로의 선교목사 소개, 선교목사 임직파송 선포 및 파송장·임직패 수여, 이만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의 축사, 김수태 목사(북미원주민선교회 고문)의 격려사, 전희수 목사(미주

여성목회자협 회장)의 권면, 뉴욕사모회 합창단의 축하, 황영진 목사의 답사, 권오현 박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김종덕 목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요18: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받으셨던 잔을 지금 박준열 목사와 선교사로 파송되는 황영진 목사, 시무장으로 임직하는 서도석 장로에게 주고 계신다"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잔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한목자교회 3대 목사로 취임하는 박준열 목사는 "저는 이 순간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준 RCA 교단에 감사를 드린다. 언더우드 선교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저의 모교"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선교목사로 파송받은 2대 담임목사인 황영진 목사는 "제가 늦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년 다음에 은퇴할 것이 아니라 60대에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면서 "군에 있을 때도 북한군과 마주보며 근무하는 최전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인 최전방인 엘살바도르로 보내셨다"고 말하며 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김대원 기자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에(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영양(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오전 11시(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공회(마5: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출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토)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ce.com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땀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만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장어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지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절친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우승) 오후 12:00(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목요일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목요일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구역모임 매월 1회
한글학교(EM)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www.SuperMirapharm.com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에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물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니실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하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감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숙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다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눔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개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관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애틀랜타 '패션 2015 컨퍼런스'

2만여 청년들 헌신 다짐해



약 2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패션 2015 컨퍼런스'가 은혜롭게 열리고 있다.

새해를 맞아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2일(금)-4일(주일)까지 약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한 가운데 '패션 2015 컨퍼런스'(Passion 2015 Conference)라는 귀한 집회가 열렸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대학생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지역 공동체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빛과 소금이 되기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에는 약 22개 국가의 1,000여개 대학교에서 약 22,0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도어 홀더스'(Door Holders)라 불리는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박3일간 컨퍼런스를 섬겼다.

개회예배 설교는 패션시티교회 창립자이자 '패션(Passion)' 운동의 선구자인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맡았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인류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기글리오 목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곳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우리의 처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의 삶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시작할 말을 찾기 위해 그분의 마지막 말을 향한다"고 했다.

기글리오 목사는 또한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용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순종

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나'와 '나의 세대'에 살고 있으나, 그의 이름에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는 예수의 삶과 죽음의 주변을 경주하고 있다. 오늘 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드리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크리스 톰린(Chris Tomlin), 크리스티 노켈스(Christy Nockels), 크리스천 스탠필(Kristian Stanfill), 브레트 윌커(Brett Younker) 등 패션 밴드의 멤버들이 이끄는 찬양예배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는 기글리오 목사 외에도 프랜시스 찬(Francis Chan) 목사,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 크리스틴 케인(Christine Caine) 목사, 주다 스미스(Judah Smith) 목사 등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매트 찬들러(Matt Chandler), 칼 렌츠(Carl Lentz), 벤 스투어트(Ben Stuart) 등도 프로그램을 맡았다.

앞서 패션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2만7천 달러를 모금해 서아프리카의 말리(Mali)에 전달했으며, '현대판 노예제 철폐'를 위해서도 최근 몇 년에 걸쳐 약 700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또한 이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매년 노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인 수건과 양말 등을 기부해 왔다. 주최측은 행사 기간 동안 모은 수건과 양말 등을 애틀랜타의 노숙자 보호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15개 교회 청소년 연합 'D2BD 겨울 캠프'

세상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



서북미 D2BD(Dare to be a Daniel) 청소년 겨울 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자녀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서북미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 캠프 Dare to be a Daniel(이하 D2BD)가 지난해 12월 29일(월)-31일(수)까지 4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타코마 새생명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열렸다.

타코마 교회연합회 및 서북미침례교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D2BD 캠프는 서북미 지역의 크고 작은 교회에서 총 100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

청소년 영성을 변화시키는 영어 캠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D2BD 겨울 캠프는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룹별로 연극을 준비해 각자 삶에 적용도 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캠프는 여호수아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스티브 한 목사, 신영재 목사, 크리스 앤드리 목사, 존 앳킨스 목

사가 나서 세상의 시험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성서적 세계관 확립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을 심었다.

또한 성경 강의 외에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공부와 신앙과의 관계성, 신앙인의 사회 활동 등에 대한 강의 및 질의문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올바른 삶의 가치관 등을 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주 앞에 회개와 헌신을 결단하는 감동적인 시간도 있었다.

캠프를 진행한 최명신 목사는 "D2BD는 진리와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혼란한 시대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됐다"며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통한 인생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영균 기자

O.C./앨버틴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연합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영어연합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계시록)
금요일 오후 7시(계시록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Harbor + South)
T. (949)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살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1부 9:00am
장년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

EM 1:30p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949)341-0022 / (949)398-7303
www.newlifek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틴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엘버틴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삼강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경 66권 특별 성경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겨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해방의 신학교! 감동! 감동! 감동! 감동! 감동! 감동! 감동!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a@gmail.com

주일 인타라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민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일 낮 12:0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침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최요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라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을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 Tel. (562) 896-9191, (714) 252-9191



US 군목 및 채플린 세미나

여러분 자녀들을 미군선교사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사역자여러분! 전세계 미군의 주둔지에서 개척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미국 내 병원 및 관공서 채플린을 권합니다. (년봉 4만불이상)

미군 현역 군목들과 채플린들이 군목을 지원하는 방법과 혜택 그리고 채플린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드리는 공개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 유학생들이나 서류미비자이지만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합법체류가 가능한 분들이 미군군목을 갈 수 있는 과정도 소개합니다.



"병사에게 침례를 주는 한인목사"

LA 은누리 교회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382-5658



- 일시 : 2015년 1월 26일 AM 8시 - PM 4시
- 참가비 : \$35불 (점심포함)
- 강사 : Chaplain, Rev. Stephen Feinstein | Chaplain, Rev. Joseph Choi | Chaplain Josh Lee, LCDR, CHC
- 세미나 문의 : (310)502-9999

" 당일 오전 8시이전에 학생증을 소유하고 입장하시는 학생들(신학생, 일반학생)은 군목연구소에서 장학금으로 참가비를 대납해드립니다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SANTA MONICA KOREAN CHURCH

영혼사랑을 실천하는교회
선교를위해 존재하는교회
십자가의길을 경험하는교회



- 1부예배 오전 9시 (본당) 공예배
- 2부예배 오전 11시 (본당) 영어예배
- 3부예배 오후 1시 (본당) 대학, 청년부
- 어린이예배 오전 9시(유아실)
- 중,고등부 예배 오전 9시 (교육실)
-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 ~ 금)
-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
- 주일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2층)

WWW.smkc.us

담임목사 **김 경 렬** |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Rev. Kenny Kim | Tel. 310-502-9999 smkckim@gmail.com

이슬람교도 레자 아슬란의 예수론 비판 (3)

I. 방법론적 오류: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의 분리

- 1. 역사의 예수를 복음서의 예수와 분리
- 2. 켈롯의 시각으로 교회적인 예수의 이미지를 변형

II. 이슬람은 신약성경의 고유한 텍스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실증주의적 역사 개념
- 2. 복음서 기록에 대한 왜곡의 세 가지 사례

이슬람은 복음서들 사이의 모순점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하나의 논픽션처럼 자기 상상력으로 해설함으로써 복음서 필자들이 증언한 역사적 예수의 진정한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다. 다음 두 사례를 보자.

첫째 예로, 누가복음에는 열두살 된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히브리 성경의 핵심을 두고 랍비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테크톤(당시 로마에서는 그리스어인 테크톤을 문맹 소농의 의미로 사용)이라는 직업, 가난한 갈릴리 시골 마을이라는 성장 환경, 유대 농민 가운데 문맹률이 97%였던 당시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예수는 문맹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의 이러한 주장은 복음서가 전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예수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그 시대의 랍비였다는 것은 복음서가 증언하는 사실이다. 누가는 예수가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비치된 구약성경 이사야를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2)를 찾으시고 이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 이는 예수가 문맹자가 아니라 소년기 시절부터 회당에서 구약성경을 읽고 연구한 선비(rabbi)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둘째 예로, 예수를 무조건 평화론자로, 그리고 정치적 선동과는 상관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보도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수를 무조건적 평화를 가르치고 실천한 사람이라든가 당시의 정치적 동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복음서의 보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Reza Aslan, Zealot, 민경식 역, 『켈롯』, 27-28). 그러나 네 복음서는 역사적 예수는 당시의 유대교의 열심당이 가졌던 급진적

메시아 민족주의(radical Messianic nationalism)에 동조하지 않았고, 철저히 그것과 자신의 구속사적 십자가의 길을 구분하셨다. 사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민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는 저들을 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요 6:14-15).

셋째 예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무혐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일반 죄수처럼 재판관이 즉각 처형했다는 해석이다. 예수의 처형 결정을 내린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잘못이 없음을 알고 풀어 주려고 애쓰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이 역시 로마인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 그들이 깔려있을 부분을 미화한 것일 뿐, 문헌상의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 수십 명을 처형하는 것은 일도 아닌 잔혹한 인물로, 틀림없이 예수와 짧게 대면한 후 곧바로 형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이슬람은 주장한다.

3. 이슬람의 해석은 복음서 기록과 전혀 상반

그러나 이러한 이슬람의 해석은 복음서에 나타난 기록과는 전혀 상반된다.

1) 요한의 기록: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죽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도 요한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속하는 빌라도의 심문을 기록했다. 요한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선고 받게 된 사실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처형될 하나님 아들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빌라도는 예수와 짧게 대면하고 사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지하게 심문한다. 그리고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나” 하고 묻기까지 한다(요 18:38a). 그리고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 주려고 하나: “빌라도가 이르되 ...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요 18:38b-39). 민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바는 강도였더라”(요 18:40). 빌라도는 민중들의 참소에 못 이겨 예수를 죄수로 정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게 하고(요 19:1),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요 19:2)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손으로 때리도록 한다(요 19:3).

빌라도는 죄수복을 입은 예수를 민중들 앞에 데리고 나오도록 하고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요한은 증언한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요 19:4).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민중들 앞에 인도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들이 아우성치는 것을 보고 다시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요 19:5-6).

(1) 유대인들은 비정치적 예수에게 정치적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운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고소할 거리가 없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신성모독으로 고발한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요 19:7). 이에 빌라도는 예수의 고발이 종교적인 문제라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를 다시 관정으로 불러들여 심문하나, 예수는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요 19:10). 이에 대하여 예수는 빌라도에게 대답하신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요 19:11). 예수가 빌라도에게 하신 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언급하는 구절이다. 이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할 권세도 우주적 통치자인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발언은, 그가 메시아요 그의 메시아 시대는 지금(고난의 종의 시대)이 아니라 다가오는 종말(역사와 우주 심판의 시대)의 때라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빌라도는 예수의 진술이 종교적인 것이지 황제에 대한 정치적인 모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보고 그를 놓아 주려고 애를 쓴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2) “예수 석방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굴복하는 빌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줄 경우 황제의 신실한 신하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한다.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요 19:12).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가서 재판대에 세우고 자신은 재판석에 앉아 말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요 19:14b).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요 19:15a).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이외의 유대인의 왕이 없다고 말한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 19:15b). 빌라도는 민중들의 항의에 못 이겨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게 된다(요 19:16).

이상에서 보듯이 예수는 전혀 정치적 항거나 민중 반란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의 종교세력들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참칭(僭稱)했다고 고발함으로써 로마 황제에 반란을 꾀하는 인물이라는 정치적 반란의 혐의를 씌운 것이다.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의 영적 왕이라는 사실을 증언했으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발언을 예수가 로마 황제에 대해 반역했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왜곡시키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한 것이다.

2) 누가의 기록: 빌라도 “내가 보니까 사람에게 죄가 없다”

누가의 기록도 요한의 기록과 다르지 않다. 누가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고발할 내용이 내란 선동이라고 적고 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눅 23:1-2).

빌라도는 예수를 심문한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눅 23:3a). 예수는 대답하신다. “네 말이 옳도다”(눅 23:3b). 예수의 증거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가 종교적 확산에 찬 비범한 현인(賢人)으로서, 열심당이 저지른 폭력을 행사하여 로마 체제에 반란을 꾀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고발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 “내가 보니까 사람에게 죄가 없다”(눅 23:4). 이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무리는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순수한 복음전파와 치유 활동을 사회정치적인 백성 선동으로 왜곡하여 고발한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눅 23:5).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것을 듣고, 그 지역 관할자인 헤롯 왕에게로 인계한다.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므로 헤롯이 예수를 심문하나, 이미 헤롯의 인물됨을 익히 아시는 예수는 그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하여 헤롯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낸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채찍을 친 뒤 석방하려고 한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도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눅 23:14-16).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며, 고발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백성 미혹이라는, 예수에게 붙인 죄목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위협을 말하는 것이지만 로마 체제에 대한 저항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빌라도는 인지하였던 것이다. (계속)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장수한의원

척추 확장 전!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함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뚫!

통증 클리닉: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임증

한방 내과: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성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불임증, 갱년기 장애,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환

한방 소아과: 하약체질, 소아경기, 성장방 및 보약 기타: 비만치료

이런 분들께 ...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본 분
-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 안내 >>> 침, 뜸, 부항, 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갱년기 장애,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영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초이스)
통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213)381-7575 / Cell:(213)219-2739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잃어버린 세월

이유진 | 흥성사 | 4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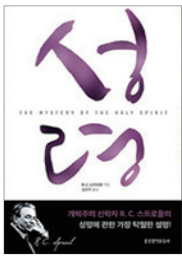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역사의 소용돌이를 헤쳐 온 네 자매의 가족 이야기. 가부장적 봉건사회의 굴레와 가난 속에서 모진 고난과 싸워야 했던 네 자매 경이, 을이, 정이, 신이. 첫째 경이는 70여년간 중국에서 살아야 했다. 을이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2005년 마침내 국적을 되찾고 귀국한다. 네 자매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사연들이 소개된다.



성령(개정판)

R. C. 스프롤 | 생명의말씀사 | 208쪽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창조와 구속 사역에서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칭의와 성화에서 성령은 무엇을 행하시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또 삼위일체, 성령세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등 성령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시킨다.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인 저자는 성령과 관련된 많은 논란들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라오즈

라오즈 | 작은씨앗 | 320쪽

2008년 대지진으로 중국 윈촨현 멘주시 7층 아파트가 붕괴됐다. 23세의 평범한 무용교사였던 저자는 딸과 시어머니를 잃었고, 콘크리트 더미에서 26시간 매몰됐지만 극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두 다리까지 패혈증으로 잘라내고 남편과는 이혼해야 했다. 저자는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아니, 당시 유일한 생존자로서 절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중국인에게 듣는 신앙 간증이라 새롭다.



존과 조지

존 돌란 | 블루엘리펀트 | 376쪽

길바닥을 전전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던 노숙인에서 비평가들의 격찬을 받는 길거리 아티스트로 변신한 존 돌란과, 그의 강아지 조지에 얽힌 실화. 20년 이상 노숙, 범죄, 교도소, 우울증, 마약 중독으로 살던 존은 조지를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이후 3년간 런던 소디치 거리에 앉아 주변 낡은 건물과 조지의 그림을 그리면서 점차 유명해졌고, 2013년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된다.



REVIEW

하나님의 창조, '기적'이라는 방법에 제한받지 않아

과학과 신앙에 얽힌 해묵은 편견 걷어내기

기독교인들에게 '창조-진화'의 관계는 영원한 숙제 같다.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이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인 데다, 그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제로섬 게임'이 되어 한 사람의 세계관 자체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리처드 도킨스 등 '새로운 무신론자들(New Atheists)'은 창조론과 유신론에 대한 호전적·적극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안티기독교인들의 합세와 한국교회의 잇따른 추문으로 이러한 공격에는 힘이 실리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의 저자 우중학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가 출간 5년 반만에 해당 도서의 확대개정판을 내놓았다. '복음주의 크리스천 과학자'인 저자는 5년 전 펴낸 책의 내용 전반을 새롭게 다듬었으며, 창세기 1장의 해석에 관한 이슈를 담은 10장 '창조 기사 이해하기'와 11장 '책을 마감하며- 진화 창조론 이해하기'를 추가했다. 저자는 기자와 크리스천 과학자의 가상 대화를 연출하면서 '과학과 신앙에 얽힌 해묵은 편견들 걷어내기'를 시도한다. 과학이 비록 '진화'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과학 그 자체는 중립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앙과 겹치는 영역이 아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우중학 | IVP | 262쪽

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진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초자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단순한 '진화' 뿐 아니라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진화 이론'과 이를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진화주의'의 차이점들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진화주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창조과학과 지적설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비판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설명된다 해서 신(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당연하면서도 인상적이다. 자연현상 자체도 신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 유지에도 신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이는 하나님을 통해 '초자

연적 현상'만을 구하고 바라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울림이 있다. 저자는 "한쪽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창조가 더욱 위대하게 드러나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이 과학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진화'를 총지휘하신 하나님을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기적'이라는 방법에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대웅 기자

공동주최: 라디오코리아, 한국일보,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el : 323-735-3000 Fax : 323-735-3111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Website: scalckc.org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사랑의 쌀

절취선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우리 생활의 기본인 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절취선**

* 사랑의쌀은 개인신청을 기본으로 신청한 1인에 1포, 한 가정에 최대 2포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한가정 2포일경우 2명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단체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은 1) 신문 및전단지 2) 웹사이트 3)이메일을 쓰실수 있습니다

1) 신문 및 전단지: 측면의 신청서에 정보를 기입하시고 남가주교협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5 "사랑의쌀 담당자 앞"

2) 웹사이트: <http://scalckc.org>의 '사랑의쌀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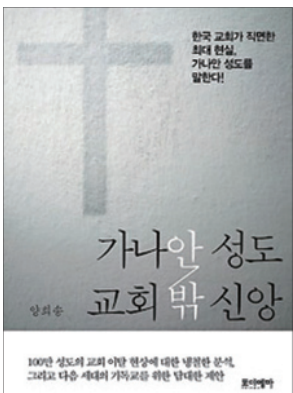
3) 이메일: koreanchurch981@gmail.com로 신청서파일 (.doc)을 보냅니다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6차 2014 사랑의 쌀 신청서

이름(name)	
이메일(email)	
연락처(phone)	
주소(Address)	

*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하신 주소로 쿠폰이 메일발송 됩니다)
* 문의사항: Tel: 323-735-3000, Fax : 323-735-3111 Website:scalckc.org
Email: koreanchurch981@gmail.com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교회 '안 나가' 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왜?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 양희송 | 포이에마 | 200쪽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은 제도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현상(faith outside institutions), 그 중에서도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가나안의 현상학', '가나안의 사회학', '가나안의 신학' 등 3부로 나눠 세간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반박하고,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여러 모순과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가나안 성도들'을 '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에게 심적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가나안 성도' 현상을 통해 저자

는 교회론과 구원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기존 성도들에게는 관습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일선 목회자나 학자, 교계 지도자들에게는 현실을 부정 또는 회피하지 말 것과 대안 모색을 권면한다.

책은 그들이 결국 '대안적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모델로 예시했는데, 이는 적은 규모라 해도 결국 '수평이동'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 제시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 하지만, 책이 말하듯 케리그마(선포), 레투르기아(예배), 코이노니아(교제), 디아코니아(봉사), 디다케(교육) 등을 '에클레시아' 없이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은 '단독자'로 서야 하지만, 기독교는 '수행 종교'가 아니므로 이들을 무조건 지지할 수는 없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안 나가'를 거꾸로 만들었다는 '가나안 성도'부터 모두 공감하고 문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이대웅 기자

'우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 과학계의 '우연' 맹신에 대한 논리학적 반론

2014년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기원(起源)'과 관련된 의미있는 발견이 이어졌다.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미국 연구진이 우주가 급팽창하면서 시공간(時空間)에 남은 중력파(重力波)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지난해 '힉스 입자' 확정에 이어 우주 탄생에 있어 '빅뱅(Big Bang·대폭발)' 이론이 힘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 생명의 근원인 '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뤄졌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수십억년 전 원시 상태의 지구에 혜성(彗星)이 충돌하면서 혜성의 물이 지구로 옮겨졌다고 '추정'해 왔다. 약 46억년 전 뜨겁게 달아오른 원시 지구의 온도에서는 어떤 종류의 물도 남아 있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학설'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년 전 유럽우주국(ESA)이 '물'의 기원'을 찾기 위해 혜성 탐사용으로 발사한 무인 탐사선 '로제타(Rosetta)'가, 지난해 12월 13일 탐사로봇 필레(Philae)를 혜성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에 착륙시켰다. 10년간 64억km를 날아간 끝에 혜성에 착륙한 로제타는 혜성의 물 분자를 포획해 질량분석기로 분석, '지구의 물과 수소-중수소 비율이 달랐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처럼 현재 '지구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과학계의 발전과 성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기독교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개혁주의 변증학자인 R. C. 스프로울(R. C. Sproul)은 키이스 매티슨(Keith Mathison)과 함께 펴낸 책 〈창조인가 우연인가〉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에 일침을 놓는다. 저자는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계의 주장들에 대하여, '우연(chance)'과 '무(無)'는 스스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논리학'으로 맞서고 있다.

1993년 나온 초판을 20년 만인 2013년 증보한 책을 번역했다. 그러나 20년간 과학계에서 각종 새로운 발견·증명들이 이어졌어도 이 책의 논리에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발견, 심지어 '창조론'에 유리한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도 책과는 무관하다. 저자들은 과학계에서 진행 중인 실험과 관찰의 주제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논리법칙에 위배되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의 주장은 원제(Not a

Chance·우연이 아니다)에 집약돼 있다. '우연'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므로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이다. 과학계에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물체가 차례로 진화의 과정을 밟을 수 있었던 이유로 '우연에 의해(by chance)'를 내세우는 데 대한 반론이다.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시대적으로 개념으로 간주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더 큰 이적을 행사하는 시간이나 우연으로 하나님을 대체한다(31쪽)."

저자는 '동전 던지기'의 예를 들어 가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연'의 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은 반반이지만, 이것은 '우연'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그 사람이 던진 힘과 바람의 세기, 기타 요건에 영향을 받을 뿐, '우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지적 의도와 상관없이 이뤄지기 위해 '우연'이라 말할 뿐, 우연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므로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다는 결론이다.

"도구적이며 원인적인 힘을 우연에 부여하는 것은 연역과 합리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비합리성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철학일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과학이다. 도구적인 힘을 우연에 부여하는 것은 현대의 과학과 우주론에 있어 가장 심각한 오류일 것이다. 그 이유는 가만히 방치되면 과학을 넌센스로 전락시킬 게 뻔한 그릇된 가정이기 때문이다(26-27쪽)."

저자들은 이후 양자도약과 빛 등의 이슈들을 논리학 입장에서 예리



창조인가 우연인가 R. C. 스프로울 외 생명의말씀사 | 248쪽

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포함해 케플러 이전의 모든 과학자들이 행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님을 의심하지 못했기에 '태양이 지구의 중심'임을 오랜 기간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그릇된 가설'들이 만들어진 것은 자료들에서 부정확한 추론들이 도출됐기 때문'으로 애당초 '연역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포함해 러셀의 주장 등의 철학적 문제점들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딘가에 어떤 부류의 자존하는 존재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을(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존하는 존재는 논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이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필연적인 존재'다. ... 자존하며 영원한 존재는 그 자신의 내재적 존재 능력에 의해 존재한다. 그 존재는 자신 외부의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다(182-183쪽)."

이대웅 기자



R. C. 스프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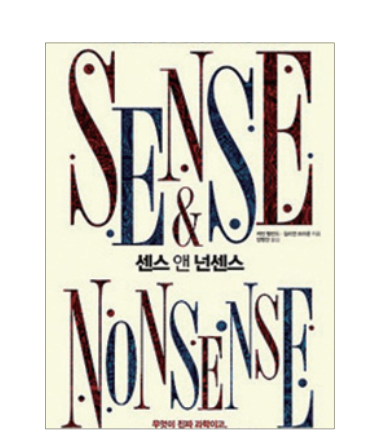
진화론의 비판적 평가와 주요 접근법들의 개념

〈센스 앤 넌센스〉는 150년간의 '진화론 논쟁'을 간략히 소개하고, 사회생물학과 인간행동생태학, 심리학과 문화·유전자론 등 20세기의 다섯가지 진화론 접근법의 주요 개념과 비판적 평가를 시도한다.

저자들은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건설적이고 공정하며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책은 진화론적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얼마나 타당하게 연구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으며, 인간 사회나 문화에 존재하는 고유한 특징들이 때때로 그러한 방법론을 무력화하지는 않는지 검토한다.

저자들의 이러한 방향은 인간의 본성을 생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들이 사회과학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기 때문에 나왔다.

"오늘날 진화론은 세련된 균형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 해서 진화론적 추측에 바탕을 둔 두루뭉수리한 분석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다. ... (중략) ... 진화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원적이지만 엄격하고, 다



센스 앤 넌센스 케빈 랠런드·길리언 브라운 동아사이 | 488쪽

산적(多産的)이지만 자기비판적 과학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참된 진화론적 방법과 추론을 옹호하지만, 무분별한 담론이나 지나친 진화론적 추론은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물학과 사회과학의 참된 결합은 센스와 넌센스의 비율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414-415쪽)."

이대웅 기자

저자들의 주장은 원제(Not a

TOGO & 케더링 환영

머글래 싸갈래

특석떡볶이 개시!!!

연말연시 동향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케더링·도식락

월	복어국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불고기 푼치구이 오므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개 햄박스텍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재우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뎅백반	금	푼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까스 치킨데리아끼 김밥+우동
----------	---------------------------------------	----------	--	----------	--	----------	---------------------------------------	----------	--	----------	--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한 인슐린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 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광생을 안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십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미권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블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갈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2015 Genesis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2014 Genesis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2014 Equus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33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교회와 총회 바로 세우고 하나님 위해 일하자

예장 합동 신년하례예배 드려, 백남선 총회장 설교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백남선 총회장이 설교하고 있다.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신년하례예배가 6일(화)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1부 예배, 2부 축사 및 인사, 3부 오찬 및 친교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는 권재호 목사(서기)의 사회, 이호영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이승희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 백남선 총회장의 설교, 김동관 목사(부회록서기)·서병호 장로(회계)의 특별기도, 김창수 목사(총무)의 광고, 박무용 목사(부총회장)의 축복 순서로 드렸다.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창 31:13)를 제목으로 설교한 백남선 총회장은 “좋은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늘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며 “바로 우리의 인생 끝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삶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와 총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훈 목사(회록서기)의 사회로 연 2부 순서에선 서기행·장차남·이기창·안명환 목사(이상 증경총회장), 신수희·이완수 장로(이상 증경부총회장)가 축사하고, 김중준(총신대 운영이사장)·김재호(GMS 이사장)·민찬기(기독신문사 이사장) 목사, 이재천 장로(기독신문사 사장)가 인사했다.

서기행牧사는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장차남 목사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이 도덕성과 신학적 정체성, 공교회성 등을 회복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축사했다.

김재호 목사는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비롯한 GMS 가족들을 대신해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에는 교단 선교부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오직 선교에만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으며, 민찬기 목사는 “새 희망과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뜻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이후 백남선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이 증경총회장 및 이날 신년하례예배 참석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교단의 발전을 염원했다.

김진영 기자

분열 극복,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것

CTS 감경철 회장, 국가조찬기도회 제7대 회장 취임



행사 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이하 국가조찬기도회) 제7대 회장 감경철 장로(CTS기독교TV 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한국교회 지도자 및 정·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향후 2년 동안 국가조찬기도회를 이끌어갈 감경철 회장은 취임인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사역에 동역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사회의 다툼과 분열의 상처를 극복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개혁정신으로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임사한 김명규 제6대 회장은 “2년간의 임기를 큰 허물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초창기부터 사무실을 지원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매년 지원해

주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설교를 전한 총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는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본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운동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고 말했다.

축사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은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국가조찬기도회 신임 회장이 그 중심에서 힘써 기도할 것으로 믿는다”고,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대표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힘으로 올 한 해 국민들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석수 기자

한기총 정관 관련 논란의 전말과 진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1월 말 정기총회를 앞두고 때 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한기총에서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던 정관을 회수한 것을 빌미 삼아, 일부 인사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금) 서울 한 지역에서 회동해 ‘한기총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대화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까지 조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이승렬 목사를 위원장으로, 정학재 목사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위원회 측은 △이영훈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 시절 홍재철 목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관개정 승인 요청서가 한기총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업무 정지현상 △그러므로 한기총은 현재 대표회장을 비롯해 공동회장, 부회장, 총무, 상임위원 등 책임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이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한기총 정관변경 약사(略史)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는 어폐(語弊)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기총이 지난 2011년 가처분에 의해 대표회장이 직무정지된 소위 ‘한기총 사태’ 이후 격랑에 빠져들면서 여러 차례 정관을 변경한 데서 온 혼란에 기인한다.

한기총은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7일 법원에 의해 특별총회를 열고 ‘7·7 정관’을 채택했다. 이 정관은 교단 순번제와 1년 단임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3개월 만에 바로 개정된 순번제는 폐기되고,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에서

2년 단임으로 바뀌었다.

이후 한기총은 제18대 홍재철 대표회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 2013년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표회장 출마 자격을 얻은 홍 목사는 2014년 초 다시 당선포 제19대 대표회장으로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홍 목사의 대표회장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소송은 본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홍재철 목사는 2014년 8월 임기가 1년 5개월 남은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라며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홍재철 목사의 사임 후 한기총은 임시총회를 열어 제 20대 대표회장으로 이영훈 목사를 만장일치 선

출했고, 이 목사는 현재 홍 목사의 잔여 임기를 수행 중이다.

◆문광부와 한기총의 입장

‘2년 연임’ 개정 정관의 경우 문광부가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기총 측은 자구 수정을 위해 이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승인했었던 정관을 2013년 12월 5일 직권 승인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문광부에는 ‘2년 단임제’ 정관이 승인을 받아 남아있는 상태이다.

문광부는 위원회 측의 주장에 대해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가 우선으로, 정관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한기총에 적용되는 부분은 대표회장 ‘연임’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재철 목사도 대표회장 재임 시절 “주무관청의 정관 승인 여부와

한기총 존립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정관 문제와 현 이영훈 대표회장 체제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영훈 대표회장 취임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한기총에 불필요한 잡음을 야기하고 있는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계 인사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기총 정상화와 개혁, 향후 한교연과의 통합 등 기독교계 전체를 내다보는 행보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한기총 내부에서도 “이영훈 대표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됐기 때문에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c)(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 지부장: 김경호 목사 | ☎ 213.249.1161 | shelby.moon65@gmail.com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LA | ☎ 949.864.9162 | cmm6791027@gmail.com

※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